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글자에 담긴 힘

퇴조비(退潮碑)의 비밀

저울바다에 내리는 눈을 보면, 그 시원함과 아름다운 파랑(波浪)과 백설(白雪)의 향연은 누구나 보고자 하는 광경 일 듯 하다.

삼척시 정라동에 삼척항이 잘 보이는 육향산(六香山)이라 불리우는 작은 언덕에 전각이 서있고 그 속에 퇴조비(退潮碑)라고 불리우는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 강원도 지방유형문화재 제38호)가 서 있다. 동방 전서체(篆書體)의 일인자인, 미수 허목(許穆)선생이 오석(烏石)의 비신(碑身)에 독창적인 고전 자체(古篆字體)로 동해송(東海頌)을 쓴 것이다.

미로(眉老)께서 삼척부사로 재임할 당시에 심한 폭풍이 일어 바닷물이 고을까지 들어오는 큰 해일(海溢)이 있었

동방 전서체 일인자 미수 허목

동해송 쓴 척주동해비 세우자

해일 가라앉으며 바닷물 잠잠

는데, 직접 전서(篆書)로 동해를 기리는 시를 지어 비를 세웠더니, 해일이 가라앉고 바닷물이 요동쳐도 이 비석이 있는 곳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

전하는 말로는 선생께서 비석이 후임 삼척부사에 의해 훼손될 것을 미리 알고, 한 개를 더 만들어 동헌마루에 묻어 감추어 놓고, 가장 나이 어린 아전에게 그 사실을 은밀히 전하도록 하니, 후임 부사가 비석을 깨어 버려 다시 풍랑에 고을이 침수되고,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다시 꺼내어 세운 것이 지금의 비석이라 한다.

비문의 신묘함이 소문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덕을 보고자 하여,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가정의 풍파(風波)를 방지(防備)하려고 탁본(拓本)을 떠가는 사람들이 많아 지금의 비각을 세워 훼손으로부터 비를 보호하고 있다.

글과 글씨의 힘으로 온갖 재화(災禍)를 방지하고자 하는 생각은 사실 보통 생각하기에는 미신에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도 글과 경(經)이 지닌 신비한 힘을 빌어 외적(外



척주동해비 오금탁본

賊)을 물리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의 당송(唐宋) 시대에 유명한 문필가의 집에 한 부자가 찾아와 '물 수(水) 한 자를 써받아 가면서, 천금(千金)의 돈을 내고 가자, 시문(詩文)을 받지 않은 것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비웃어 마지않았다. 그런데, 그 부자가 사는 마을에 큰 불이 나서 마을의 대부분 가옥들이 다 불타서 쓰러졌는데, 오직 그 부자의 집은 화마(火魔)를 면하였다.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 집에 가보니, 마루에 '수(水)'자가 쓰인 족자가 걸려 있었다 한다. 다시 말하면, 수(水)자의 물 기운으로 불을 이겨냈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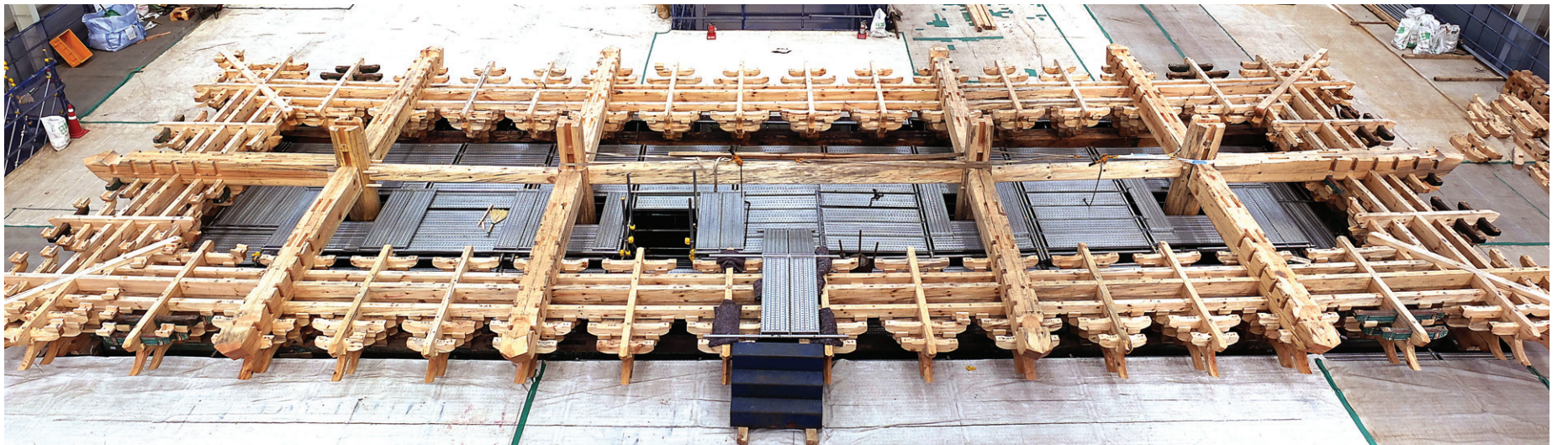
이들은 전통기술에 의한 원형 복원 원칙에 따라 기존 부재 중 사용할 만한 것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고증과 발굴조사를 통해 근대기 성벽 철거·변형 이전 모습으로 성곽과 지반을 복원할 계획이다. 대부분이 불자인 승려문 복원 장인들은 12월 13일에 막을 내릴 복구공사 작업에 헌신을 다 하고 있다.

“황룡사 9층 목탑 복원 하고파”
신승수 대목장(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70)은 1942년 충북 청원군 출생해 17살의 나이에 목수일을 시작했다. 고생 끝에 1970년 불국사 복원 공사 때 부편수로 발탁되고, 1975년 수원성 복원 때 도편수(대목 분야 총지휘자)로 참여했다. 이후 경주 안압지 내 건물을 복원했으며, 창경궁과 창덕궁,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의 주요 전각 보수 정비공사를 진행하는 등 100건이 넘는 복원 작업을 주도해왔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승례문을 복원하는 불자 장인들



2월 10일 현재 복원중인 승례문루 전경모습. 문화재청은 3월 8일 상량식을 진행하고 5월까지 목공사를 마친 뒤 기와를 얹고 단청을 입힐 계획이다.

승례문 75% 복원 ... 12월 완공

국보 제1호인 승례문이 방화로 소실된 지 4년이 지났다. 승례문 복원 현장에서는 복원 공사가 한창이다. 석공들이 석재를 다듬고, 대목들은 문루 2층 조립에 분주하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에 따르면 현재 복원율은 75%. 오는 5월까지 목공사를 마친 뒤 기와를 얹고 단청을 입혀 12월에는 늘림한 모습을 찾을 예정이다. 3월 8일에는 상량식도 진행된다.

승례문 복원에는 6인의 장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신승수 대목장, 홍창원 단청장, 이재순 석장(석조작), 한형준 제와장, 이의상 석장(석구조물), 이근복 번와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전통기술에 의한 원형 복원 원칙에 따라 기존 부재 중 사용할 만한 것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고증과 발굴조사를 통해 근대기 성벽 철거·변형 이전 모습으로 성곽과 지반을 복원할 계획이다. 대부분이 불자인 승려문 복원 장인들은 12월 13일에 막을 내릴 복구공사 작업에 헌신을 다 하고 있다.

“황룡사 9층 목탑 복원 하고파”

신승수 대목장(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70)은 1942년 충북 청원군 출생해 17살의 나이에 목수일을 시작했다. 고생 끝에 1970년 불국사 복원 공사 때 부편수로 발탁되고, 1975년 수원성 복원 때 도편수(대목 분야 총지휘자)로 참여했다. 이후 경주 안압지 내 건물을 복원했으며, 창경궁과 창덕궁,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의 주요 전각 보수 정비공사를 진행하는 등 100건이 넘는 복원 작업을 주도해왔다.

2002년 만해예술상을 수상한 신승수 대목장은 조계사, 불국사, 쌍계사, 불정사, 뉴욕 한미은행 등 다수의 사찰 복원과 신축

사업도 진행했다. 신승수 대목장은 최원식·조원재·이광규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대목장 계보를 잇는 장인으로 손꼽힌다. 그는 “모든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다. 때문에 모든 장인들 다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 복원 작업에 힘 쏟고 있다”며 “승례문 복원 후에는 전설 속에 묻혀 버린 황룡사 9층 목탑을 생전에 복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심으로 붕괴양 올릴 터”

홍창원 단청장(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57)은 15살 무렵 독실한 불자인 어머니 손에 이끌려 봉원사에서 작업을 했던 단청장 만봉 스님(1910~2006) 문하생으로 단청에 입문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단청 공부를 했지만 그에게 단청 배우는 일이 즐겁기만 했다.

홍 단청장은 20세를 넘기자 만봉 스님을 보좌하며 서울 보문사 일주문 단청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일했다. 1981년에는 만봉 스님의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됐고 1986년에는 이수자로 선정됐다. 그는 창경궁 문정전(1986년), 경복궁 경회루·강녕전·사정전·교대전(1994~1995년), 덕수궁 중화전(2001년), 경복궁 근정전(2003년) 등 국내 주요 궁궐과 사찰의 단청을 도맡아 이름을 얻기 시작했으며 2009년 2월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이 됐다.

5월부터 본격적인 단청작업을 시작하는 그는 현재 승례문 단청문양을 모사(模寫)하고 있다. 홍 단청장은 “만봉 스님께서는 황상 단청작업을 할 때 불심을 갖고 붕괴양 올릴 듯 정성들여서 하라고 강조했다”며 “국보 제1호라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스님 말씀을 새기며 최선을 다해 복



신승수 대목장 홍창원 단청장 이재순 석장 한형준 제와장

불자 장인 승례문 복원 위해
혼신의 힘 다해 작업 진행 중
고증과 발굴조사 통해 근대기 이전
성곽과 지반 복원에 전력

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석굴암 같은 세계적 석조물 만들고파”

이재순 석장(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56)은 우리나라 최초의 중요무형문화재이다. 1956년 충북 단양출신인 그는 한학자인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있어 팽이깎기, 썰매 만들기 등 전통 놀이기구 만들기를 좋아했다. 그러던 중 12살 석공인 외삼촌에게 돌을 고르고 만지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재순 석장은 스승인 김진영 선생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석공의 길로 들어섰다. 김진영 선생은 조선시대 경복궁 석조물을 조각한 이세욱 선생과 김맹주 선생의 맥을 잇는 석조계의 대가다. 이재순 석장은 김진영 선생으로부터 전통기법과 장인이 지녀야 할 정신을 배운 뒤 두 번째 스승 김부관 선생을 따라 불국사 청운교·백운교 보수작업을 했다. 덕분에 불교미술 대전에서 특선을 수상해 석조작 공예가의



길에 들어섰다. 또한 그는 백제 최초불교 도래지인 영광 마라나타사에 사면불상을 조성하는 등 불교와 인연이 깊다.

이재순 석장은 “불국사 석굴암의 놀라운 조형미를 보면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다”며 “석굴암 같은 세계적인 석조물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승례문, 생애 마지막 작품”

한형준 제와장(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83)은 ‘조선 기와의 맥’으로 통한다. 2011년 여름부터 지하 100m에서 길어 올린 고운 진흙을 장흥의 안양면 모령리에서 가져와 밟고 다진 후 흙 판으로 기와를 만들어 가마에 굽는 방식으로 전통 기와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형준 제와장은 “땀이 다소 불편하지만 ‘생애 마지막 작품’이라는 일념으로 이번 승례문 복원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나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맘 흘리는 불계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계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집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헤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